
2021년 제17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4. 23. ~ 4. 29.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4. 23.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의 암울한 상황속에서 전체적으로 다채로운 내용을 잘 담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거나,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생각해봐야 할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조명한 '장애 인식 개선 위해 대학생들이 나선다'와 '장애 딛고 우뚝 선 청년 미술 작가 황성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조명해서 큰 감동을 주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독일 교민들의 모습과 온라인 강좌 시대를 소개한 취재물도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또 금강 하중도 쓰레기 실태에 관한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 B급을 넘어 C급 감성... '이색 지역 홍보' 인기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모습을 소개했는데, C급 감성의 지자체 홍보물은 우선 눈길을 끌기에 딱 좋았다. 특히, BTS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여주시 고구마 홍보물과 이어 경북도와 대구시와 파주시의 참신한 홍보물을 통해 홍보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버스 무정차 걱정 마세요" '승차벨' 서비스

경기도는 버스 앱을 통해 승객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는 것을 기사에게 알리는 '승차벨' 서비스를 시작했다. 버스 서비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었다.

■ '이웃과 함께해요' 지역사회 돕는 독일 교민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 교민들이 한국산 마스크를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훈훈한 모습을 전하였다. 세계 모든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교민들이 주체적으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서로 돕는 흐뭇한 소식이었다.

■ 장애 인식 개선 위해 대학생들이 나선다

예술활동을 매개로 시작한 발달장애인과 대학생의 소통인 대한연합동아리 'SID'의 활동을 전했다.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통해 텀블러 등 굿즈를 만들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모습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로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턱을 없애는 대학연합 프로젝트팀 'all around'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 장애 딛고 우뚝 선 청년 미술 작가 황성제

발달장애인 황성제 작가의 로봇 그림은 매우 아름다운 색감과 풍부한 상상력이 독창적인 모습이였다. 신발과 마스크에 작가의 그림을 도입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소식을 전했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0. 4. 24.	시청률	0.004

【총 평】

‘씻소리와 예술이 만드는 하모니-영등포구 문래동’편은 도심 속 잊혀진 골목이면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메카였던, 서울 문래동 철제 골목의 역사와 삶을 표현하였다. 또, 문래동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곳곳의 빈자리에 새로운 예술혼을 불태우는 젊은이들과 상생을 맞이하여 씻소리와 예술이 만드는 하모니를 이뤄내고 있음을 전하였다.

50년이 지나도 철강 장인들의 씻소리는 숨결소리 마냥 정겹고 아늑하다. 흰머리 희끗한 세대와 청년 세대가 교류하는 문래동 철강골목의 철강인들의 삶을 통해 추억을 보았고, 쇠에 예술을 입힌 철강인들의 모습을 통해 공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서울이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흔히 떠올리는 서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주는 그리움과 옛 정취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기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그 옛날 시대의 근면한 아버지 모습과 같은 분위기를 전하여 추억을 되새기게 하였고, 문래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공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전해주었다. 한때 철강산업의 메카로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던 이곳에 변화의 시대를 맞아 하나 둘씩 떠나고 빈둥지에 젊은이들의 예술혼을 불태우고 주변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새로운 분위기를 맞고 있는 곳을 전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영등포구 문래동은 1960년대부터 하나 둘 철공소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철강 1번지로 불리었다. 1980년대에는 최고의 활황을 누리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산역사가 되기도 했다. 중년 남성은 공고를 졸업하고 이곳에 들어와 터를 잡아 환갑이 넘도록 이 지키고 있으며, 그 문래동 쇠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귀를 찌르는 절단석의 마찰소리, 날리는 은빛 먼지들, 튀어오르는 용접불꽃까지. 우리네 아버지와 함께 한 세월만큼 낡고 오래된 작은 골목에는 가득한 세월의 흔적과 그곳의 울리는 삶의 소리들이 있다.

또, 젊은 청년 사장은 간판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기계 소리지만 아주 정교했다. 최신 장비들을 선보이며 옛날의 문래동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현재의 문래동의 모습을 시사하기도 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청년 사장은 ‘철강일을 한다는 것이 천한 이미지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자가 좋다’고 말했다.

문래동에서 예술의 꽃을 피우는 청년 예술가들이 철과 예술의 만남을 다루었고,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래동의 어둡고 철가루 은빛 먼지 날리던 철제골목에서 젊은이들의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과 혼이 불타오르며, 화려한 색채의 담벼락의 그림과 크고 작은 카페 거리, 아늑한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낡은 곳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이 문래동을 거둑나게 하고 있음을 전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4. 24.	시청률	0.016

【총 평】

‘순례길에서 하모니카 부는 사나이’ 편은 산 속에서 3명의 노년 남녀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과 봉사’로 살아가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휴먼스토리를 감동으로 엮어냈다. 특히, 70대 주인공은 경찰공무원 생활 중 공상을 당한 아픔을 하모니카 연주로 탈출하며, 숲속 빈터 휴게시설의 무료 운영과 함께 실버 화가와 저장 강박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줬다.

주인공이 사고를 당하고 IMF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술의 유혹에 빠져 우울증을 겪는 과정은 베이비붐 세대 등 동시대를 살아온 실버 세대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끼게 했다. 이를 하모니카 연주로 전환한 극적 반전이 흡인력을 이끌었다. 한자로 사람 인(人)의 형상이 서로 의지하고 균형을 이루고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주인공의 메시지가 삶의 철학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천주교 미리내성지로 이르는 순례길에 위치한 장촌마을에 귀촌하여 27년간 살아온 장만수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지순례길부터 쉼터의 소개, 장만수씨의 과거와 하모니카, 하모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했다. 천주교 미리내성지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길이다.

주인공은 32년간 경찰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여겼다. 그러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얻고 재취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다 하모니카로 외로움을 달래고 하모니카에 빠져들수록 실력도 늘어나다보니 국제대회 수상도 하게 되었다. 하모니카가 연주되는 쉼터라 사람들은 하모촌이라고 부른다.

특히, 장애를 딛고 일어나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사람들과 동반자적 삶을 일궈가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진정한 인간애란 무엇인지, 또 나눔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 지붕 세 가족의 모습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최근 순례길이 정비되고 있고 유명한 트래킹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인공은 도움이 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하모니카 연주자와 화가의 만남, 음악과 미술의 만남이 조화를 이뤘는데, 벚꽃 음악회에서 하모니카 협주, 등산길 쉼터와 밤 하늘의 별, 일몰, 꽃의 화려한 영상이 시청각 몰입도를 높였다. 트래킹 순례자에 대한 무료 봉사, 노년 화가들에게 작업과 전시 공간 제공, 저장 강박증을 앓는 노인을 도우며 더불어 사는 삶이 잘 그려졌고,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의 방문으로 어려운 노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런 민원봉사 행정 홍보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4. 24.	시청률	0.000

【총 평】

‘친북! 친절한 한반도 시사 토크’에서는 북한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 행보를 보인 속내가 무엇인지 유쾌하게 풀어내 흥미를 이끌어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와 달리 최측근 5명만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이는 체제결속과 홀로서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특히 현송월 부부장의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궁금한 한반도 이야기 ISSUE 텔링’은 11개월 만에 도발한 북한의 미사일과 핵우산 역할 등을 살펴보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을 되짚어 보았다.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의 본질을 간파한 아이템으로 미사일의 정체와 종류, 우리의 대응으로서 핵우산의 정의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유익했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지난 태양절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살펴보면서 시작했는데 그 의도와 측근 실세, 그리고 가족코트를 입고 나온 모습까지 속속들이 다 분석해서 매우 흥미로웠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아직까지도 1인 독재체제의 이름을 굳건하게 굳혀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기념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로 큰 행사를 치르고 있다. 그 동안 할아버지의 체제 등을 시도하여 김일성 시대 향수도 경험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전대 지도자와 다른 김정은식으로 시도해본 상황에서 김정은식 북한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질 고난의 행군 앞 마지막 잔치라는 풀이에 공감에 갔다. 또한 지난 19년에 비해 확 줄어든 측근 세력의 모습을 두고 변화한 모습을 비교해보는 대목이 아주 흥미로웠다. 이 과정에서 현송월 부부장의 행보 또한 꽤 비중 있게 다루어 기억에 남았고 똑같이 가족코트를 차려입은 3인방에 대한 분석 또한 무척 재미있었다. 또, 현재 김정은의 정치를 두고 홀로서기라고 표현을 하며 지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회상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자신만의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김위원장의 속내가 잘 분석이 되어 무척 공감을 샀다.

‘ISSUE 텔링’은 11개월 만에 도발한 북한 미사일을 먼저 언급하고 미사일의 종류 등을 살펴보아서 유익했다. 유도탄과 탄두 미사일 등 심심치 않게 쓰고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를 말한 내용을 그 유례부터 기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두려움을 느낄 법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반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어 미사일 공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한의 핵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지 핵우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고체 연료와 핵우산 등 전문용어들도 쉽게 풀이해 주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049

【총 평】

‘대량학살의 악순환-태안 민간인 희생사건’편은 서울수복 전후로 인민군이 철수한 뒤 대대적으로 자행된 부역혐의자와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당한 태안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재조명했다. 특히 태안 민간인 희생사건의 배경에는 주민간 갈등과 보복심리가 작용했다는 점이 역사적 아픔으로 남아있었다. ‘끔찍한 보복 학살, 대량 학살의 악순환’이 태안 민간인 희생사건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화해하고 협심해야 된다.”는 유족의 피 맺힌 한마디가 진한 여운으로 남았고, ‘진실 그리고 화해’ 기획의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단어였다.

【구성 및 내용】

대량 학살의 악순환-태안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이 컸던 충남 태안의 보도연맹원 14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을 다루었다. 태안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민간인 희생사건’을 단순히 사건 차원이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태안의 ‘민간인 희생사건’은 해방 이후 좌우대립과 한국전쟁 당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았던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라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고 혼란과 갈등이라는 역사적 질곡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재였다.

1950년 7월 12일, 태안 경찰들은 인민군을 피해 남쪽으로 떠났는데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떠나기 이틀 전 태안 지역의 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특히 인민군 점령기 희생자 유족들이 주도를 하며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산리 공동묘지 등 태안에는 10여 곳의 집단 학살지가 존재했다. 아직 이곳에는 희생당한 이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무연고 묘들이 여전하다.

희생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같은 마을 주민에 의해서 보복적 죽임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전쟁이라는 혼란이 가져온 아픔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인민군이 점령시에는 우익인사가 학살당하고 인민군이 철수한 뒤에는 부역혐의자 등이 학살당하는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한 마을 주민 간의 갈등과 원한, 보복심리가 피해 양상을 키운면도 증언으로 나타났다.

생생한 증언과 학살이 일어났던 현장을 중심으로 취재가 이뤄졌는데 논리적 방식의 내용 전개보다 더 힘을 발휘했고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많았다.

유족마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달랐으나 아픔과 회한이라는 하나의 느낌으로 잘 정리가 됐다고 본다. 마지막에 희생자 유족의 이야기를 통해 아픈 기억은 뒤로 하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제언을 했는데 매우 적절한 마감이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095

【총 평】

톤백저울의 계측량 오류로 불편을 겪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여군 사례와 버스가 없던 오지마을인 안골마을에 버스가 개통돼 주민들이 편리해졌다는 안산시 사례 등 기초자치단체의 위민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었다.

부여군 사례는 ‘톤백저울’은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산시 사례는 지속적인 민원제기에도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짚어주어, 그 동안 안산시의 노력을 알 수 되었다.

특히,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의 힘을 잘 느낄 수 있는 소재였고, 지자체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현장 분위기가 잘 살아나 좋았고, 민원의 주체인 주민과 해결 주체인 지자체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점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 계측량 오류 ‘톤백저울’ 부여군 무상점검

농가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점검이 한창이다. 공공비축미 수매 전 100kg 이상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톤백저울은 정확해야 하나 농가가 보유한 톤백저울은 오류 문제 많이 발생한다. 집에서 측정한 무게와 수매장소에서 측정한 무게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톤백저울은 수리비용도 높고 추 무게도 무거워 개인별 점검이 어렵다. 이에 부여군이 수리업체와 함께 순환하여 무상점검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리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부품 교체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부여군의 순환 점검 계획과 점검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 메시지 완성도를 높였다.

■ 버스 없던 ‘안골마을’ 오지노선 개통

경기도 안산시의 안골마을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었다.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안골마을은 처음 마을이 생길 때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안골마을에서 주요 편의 시설까지는 5km정도의 거리다. 이러다 보니 노인분들의 경우 불편한 점이 많았다. 더불어 학생들도 등굣길에 필요한 대중교통이 없어 모두 마을에서 나가기도 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안산시도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택시 활용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버스가 그간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이유였다. 이에 2018년에 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포장을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확장하기에는 버스회사의 손해가 많아 버스 운행이 되지 않다가 안산시가 부족한 재정을 지원해주면서 결국 최근 노선이 개통되었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004

【총 평】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제7회는 출산 혜택 지원받는 법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소개했다. 출산 혜택 지원받는 법은 2022년부터 새롭게 펼쳐는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3+3 육아휴직제도, 첫 만남 꾸러미, 영아 양육수당 확대,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을 살펴보았다. 경력단절 재취업 정책으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학점은행제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출산 지원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출산률 저하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소개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3+3 육아휴직제도, 첫 만남 꾸러미 정책 등이 소개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정책들은 22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 홍보의 효과까지 있었다. 3+3 육아 휴직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모두에게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이다. 첫만남 꾸러미는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양육수당은 24개월~ 83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영아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과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몰입력이 강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매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자녀 출산별로 금액을 딱딱 정리해 눈에 잘 들어왔고 해당 정책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특히 출산장려금 혜택을 시도별로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더욱 그러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학점은행제에 관해 두가지 모두 구체적인 신청대상과 방법, 차후에 지원금 지급이나 취업 연계방안까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모두 다루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을 그래프로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실태도 잘 파악해 주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소개에서는 교육훈련, 신청방법, 지원 혜택부터 기업의 안전성, 사후관리지원금, 지원금 지급방식,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까지 연계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해주어 구직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했다.

학점은행제는 신설된 제도는 아니지만, 특히 학력이 없고 비전공자라도 학점 은행제를 활용하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이 외에 대상과 학비 학위 수여, 평가 인정 학습 과정까지 역시 상세히 소개가 되어 무척 유용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기관 선호도에 관한 조사도 준비했는데 1위가 여성인력개발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0. 4. 25.	시청률	0.017

【총 평】

데이터 홍수시대에 세계적 기업의 성공비결은 빅데이터다.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댐이다. '21세기 원유탱크-데이터댐'편은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댐의 활용 사례와 효과는 물론 이로 인한 역기능과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폭 넓게 살펴본 기획이 탁월했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곧 나에게 이익이 되는 뉴딜'임을 인식시켜주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을 이끄는 기획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데이터 댐'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적용 분야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로 불리는 기술적 요소들이 어떻게 산업계에 구조적인 혁신을 일으키게 되는지 또한 그 결과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데이터 댐'이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산업계와 실생활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빅데이터'를 잘 다루서 성공한 미국의 FAANG 5대 기업을 소개하면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설명보다 효과적이었다. 데이터 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의 기준을 최신성, 정확성, 밀도, 연결성, 표준화 등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데이터 기반 산업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윤리적, 법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한편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데이터 레이블링 자동화 툴'을 만들어서 활용 중인 기업을 찾아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취재했는데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데이터 레이블링으로 작업시간 줄이고 효율성 높이는 우수 기업과 4차산업 혁명과 농축산 분야의 로봇 활용 낙농가, 스마트 팜 사례, 인공지능 센서 부착 지게차 사례, 물류센터의 대변화 예고 등 생생한 활용 사례로 소구력을 높였다.

정부에서 금융, 유통, 통신, 교통 등 10개 분야의 데이터 댐을 구축한바 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실행할 시 과거와 달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용형태, 부도난 회사의 특징을 활용한 동태적 평가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 범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의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윤리적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